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 사례 연구: 브라질의 ArPDF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Management: Focusing on the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of Brazil

박경현(Gyeonghyeon Park)¹, 김순희(Soonhee Kim)²

E-mail: pgh1031@gmail.com, siva@cnu.ac.kr



¹제1저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²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2.10.21
최초심사 2022.10.27
게재확정 2022.11.21

ORCID

Gyeonghyeon Park
https://orcid.org/0000-0002-0447-4065

Soonhee Kim
https://orcid.org/0000-0001-9510-3819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국가의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국정사업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역사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을 수행하며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rPDF의 웹 사이트와 공식출판물 등을 분석하여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roject is an important national project implemented to relocate the national administrative capital, and th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have high historical value. However, Korea's management of these record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is insufficient; thus, finding a management plan is necessary. In contrast, Brazil is a country that collects, builds, and maintains both public and private records produc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Brasilia,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us,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rPDF), the Brazilian records manage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manage Brasilia's construction records, was selected as the case analysis subject in this study. By analyzing ArPDF's website and official public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all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and derived implications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in Korea.

Keywords: 도시건설기록, 신행정수도건설기록, 남미국가 기록관리, 브라질 기록관리, ArPDF urban construction records,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records, South American records management, Brazilian records management, ArPDF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도시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산물로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유기적 공간이다. 도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정치, 경제, 산업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여 건설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가 아닌 어떤 계획이나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계획도시 혹은 신도시라고 부른다. 가장 대표적인 계획도시는 미국의 뉴욕,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창원시, 과천시, 신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있다.

계획도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도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시가 발전되는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참여 주체로부터 수많은 기록물이 생산된다. 도시건설 사업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도시건설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 및 실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설명하고 증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계획도시 형성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대내외에 도시건설의 업무설명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되므로 국가적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또한 도시건설 기록물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일차적인 학술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으며, 도시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여 도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도시건설 과정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관련 학회, 건설업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및 개인 등 민간분야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도시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건설 과정에서 각 영역별로 다양하고 수많은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되는 기록물은 그 유형과 관리 형태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등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은 대부분 생산기관 내에 산재하여 있다.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참여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의 전 과정을 아카이브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 과정을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기록물 수집 출처를 적절히 선정하고,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과 같이 이례적이며, 규모가 큰 도시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의 핵심공약에 따라 이행된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정책사업이므로 관련 기록물은 행정적,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록물 생산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되어야 한다.¹⁾ 현재 신행정수도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공공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보면, 공공기관일 경우 대부분의 기록물이 각 생산기관에서 자체 보존되어 있다. 그렇게 자체 보존하고 있는 중앙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에 관한 기록물이 통일성 없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의 기록물을 전수조사하고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도시건설 사업과 관련한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공공기관에서 접수 또는 수집되지 않은 경우 존재 여부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간기록물도 도시건설과 관련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여부와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할

1)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사·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을 규정하고 있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생산되는 도시건설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도시건설 중에서도 대표적인 계획도시인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의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하는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건설을 먼저 경험하고 관련 기록물을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기록학에서 진행된 도시 관련 기록에 대한 연구 동향은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도시의 모습을 기록화하기 위한 연구, 민간기록물 중심의 마을 기록화 및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등 로컬리티 기록화 분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시건설 기록관리 영역은 계획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로컬리티 기록화 분야와는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록학 분야와 건축학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인 브라질의 연방 지구 공공기록보관소(Arquivo Publico do Distrito Federal: ArPDF)에 관련된 브라질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기록학 분야에서 도시건설기록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병후(2014)는 중국의 도시건설 기록관리가 발전된 연혁과 현황, 도시건설 기록관리의 기본적인 관리업무 흐름, 도시건설 기록관리제도 및 도시건설기록관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과 우리나라 도시건설 기록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김연진(2019)은 협의적인 의미의 도시개발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록이 생산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천안시를 통하여 기초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기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공간의 변천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기록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오뜸(2019)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록에 대한 관리 현황을 인터뷰와 통하여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건설기록이 가지는 공공성을 들어 건설기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대안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였다.

엄수용(2020)은 성남시 건설과 관련된 사건인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기록에 대한 현황 소개 및 분석을 통해 도시개발 및 도시 역사의 기록물이 지닌 가치가 어떤지를 드러내며, 국내의 사례를 통하여 성남시에 세워질 도시기록 아카이브와 도시기록 아카이빙 활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김훈(2020)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 계획의 과정에서 정부 정책과 정책 결정에 따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갈등 과정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여 사회적 갈등사건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수립한 방법에 사례를 적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기록학 분야에서 연구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재 도시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관리 필요성과 함께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도시건설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건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도시 개발 과정, 신행정수도건설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연구 자료 및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유광흠 외(2008)는 건축·도시공간의 아카이브의 개념을 제안하고,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의 동적인 변화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기 위한 아카이브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완전한 의미의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공공기록물을 넘어 민간기록물과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서적 등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서영(2019)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형태의 특징을 각종 공모전으로부터 법정계획인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와 계획 과정의 변화를 추적하고, 기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참여주체들의 분산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브라질의 신행정수도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Carvalho, Shirley do Prado(2003)는 브라질의 연방 공공 기록보존소인 ArPDF의 설립 배경, 발전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PDF 설립 배경 등을 당시 근무한 직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이 연구를 통하여 공공 기록보존소가 갈등과 역설의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Oliveira, Angélica Gasparotto de(2013)는 브라질리아 건설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생산된 수많은 영상 기록물 컬렉션의 존재와 해당 기록물의 소실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고, 영상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영상 기록물 컬렉션이 ArPDF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브라질에 관한 연구는 ArPDF 설립 과정에 관한 연구와 특정 컬렉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3 연구의 방법

신행정수도건설은 대통령의 당선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뚜렷한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대표적인 계획 도시 건설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²⁾라고 지칭되는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관리주체 부재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중요기록물인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의 수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시 모범 사례로 삼았던 국가 중,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브라질을 사례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브라질의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의 건설기록물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브라질 ArPDF의 웹사이트 및 공식 출판물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ArPDF 직원과 서면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여 ArPDF의 설립배경, 운영현황, 기록물 수집전략, 기록물 관리 현황,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신행정도시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신행정수도건설과 기록물 관리

2.1 신행정수도건설과정

우리나라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 신공업 단지 조성과 그 배후도시로서 개발되어 왔으나, 점차 과밀화 되어가는 서울의 인구 및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신시가지, 신주택지 건설사업으로 변천되어 왔다(이동배, 김용하, 1991).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건설은 크게 국토 및 지역개발과 대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목표에 의하여 추진된다. 기존에 대부분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외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나, 신행정수도과 지방혁신도시는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수도권외의 과잉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그중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하여 추진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도시건설은 도시개발법, 지방분권 3대 특별법 등의 관련 법률과 주요 정책에 의하여 추진되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적용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사례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어 추진되었다. 2002년 9월 3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신행정수도건설공약을 발표했다. 그 해 12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구체적인 정책지도를 완성하였다(김안제, 2016). 2003년 4월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 후 입지선정을 위하여 후보지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5년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시개념 국제공모, 공개 세미나, 공청회 등 도시 수요자의 직접 참여를 이끈 개방형 도시계획체제를 통해 도시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광역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국민공모 등을 거쳐 도시 명칭을 세종(世宗, Sejong)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6). 이후 한국토지공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2007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그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로의 단계적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여 성숙단계에 이르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2.2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의 필요성

도시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중요기록물이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이 중요한 정보자원으로서 활용되고, 문화자원으로서 후대에 전승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록관리자의 책무이다. Shepherd & Yeo(2003)는 기록의 가치와 활용성을 업무 활용성, 대내외 설명책임성, 문화 활용성의 3가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는 곧 기록관리의 목적이며, 필요성 및 유용성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기록물, 특히 신행정수도기록물 관리에 적용하였다.

첫째, 업무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면, 향후 타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 및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도시건설 과정은 일반적으로 각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설된다. 신도시건설은 그 목적이 저마다 상이하더라도 도시건설 프로세스가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앞서 건설된 도시건설 사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정부기관의 이전 등 일반적인 도시 형성 과정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일반적인 계획도시와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타 도시의 건설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를 동반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 타국가에서도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생산된 공사 관련 기록물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설계 및 준공도면 등의 기록물은 도시에서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복구, 구조 활동 등의 사고를 수습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은 일찍이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로, 터널, 교량, 철로, 비행장, 도시의 대형 조형물, 전선 등 도시건설과 관련된 도시건설 기록을 전문기록물로 분류하여 일반 기록물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유병후, 2014). 일본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록은 영구 보존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런던, 서호주 지방정부도 도시계획을 영속적으로 진행되는 기능으로 분류하여 관련된 기록을 영구 보존으로 관리하고 있다(이상민, 2006). 신행정수도의 경우 국가의 행정수도인 만큼 정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부처가 입주하여 있고 향후 국회의사당의 건립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건축물, 도로, 교량 등의 도면은 물론 관련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대내외 설명책임 의무를 지원하는 근거자료이다.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고, 후보지 선정 등 계획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뜨거웠으며,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된다. 신행정수도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이러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체계적 수집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신행정수도기록물은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부터 실행 과정을 대내외에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국가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학술적·문화적 활용도가 높은 정보 자원이다. 도시건설기록물은 도시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사회적 맥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 역사를 증명하고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계획도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건설되기 때문에 도시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탄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목적을 포함하여 과정을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록물을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기록정보서비스로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신행정수도건설의 과정과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공유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및 전시 등의 서비스는 도시 관광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홍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된 기록물은 관련된 여러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신행정수도건설의 사회적 배경, 제도, 그 과정과 결과 등 역사적 사실이 담겨있는 자료로 기록물이 소실되지 않고 중요한 정보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관리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획도시인 수원 화성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건설된 성곽으로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도시건설 사업이었다. 화성성역의궤³⁾는 조선시대 화성성곽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의식 등을 기록한 책으로 학술적·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신행정수도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또한 후대에 화성성역의궤처럼 중요한 정보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 및 관리 하여야 한다.

2.3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현황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의 최초 논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산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 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및 등록된 일부 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은 관리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소실되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3) 정조가 봉조하 김중수에게 편찬을 명령, 1796년 9월에 시작하여 그 해 11월에 원고가 완성되었다.

2002년 9월 3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건설공약을 발표한 이후 신행정수도건설 사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보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건설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한시기관이 많이 설립된다.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의 한시기관이 운영되고 관련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이 중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의 일부 위원회는 폐지되었고, 생산된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의 일부위원회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연구역을 수행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 지역인 지방자치단체 세종시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수많은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국가기록원 등으로 이관되지 않고 생산기관에서 자체 보존하고 있다. 이처럼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생산된 기록물이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물 보존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록물 보존현황

생산기관	현존여부	주요기록물	기록물 보존기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폐지	위원회 업무추진 활동 관련 기록물	국가기록원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 범위헌결정에따른후속대책위원회	폐지	위원회 업무추진 활동 관련 기록물	국가기록원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존재	투기대책 회의, 임시행정수도 지역 관련 기록물	국가기록원
법제처	존재	특별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기록물	국가기록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존재	행복도시 건설 사업시행 및 공사 관련 기록물	자체보존
국토연구원	존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연구보고서	자체보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존재	공공기관 이전 관련 회의록 등	대통령기록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폐지	위원회 업무추진 활동 관련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세종특별자치시	존재	업무협의 기록물, 수집 민간기록물	자체보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존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종합 사업관리 기록물	국가기록원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단체, 개인의 참여도 많았다. 민간영역의 기록물 생산 주체는 토목 및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설계사 및 건설사, 민간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학회, 개인 등이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 생산되어 공공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생산처에서 남아있거나 자체 폐기 처분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2017년 용역사업을 통하여 세종시 탄생과정에 관한 기록물을 한차례 수집하였고,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자발적 기증에 의존한 수집 방법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기록물조차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채 서고에 보존되어 있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야만 수집 목록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3. 브라질의 ArPDF(Arquivo Publico do Distrito Federal)

3.1 브라질리아 건설과정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는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건설 목적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륙지역 개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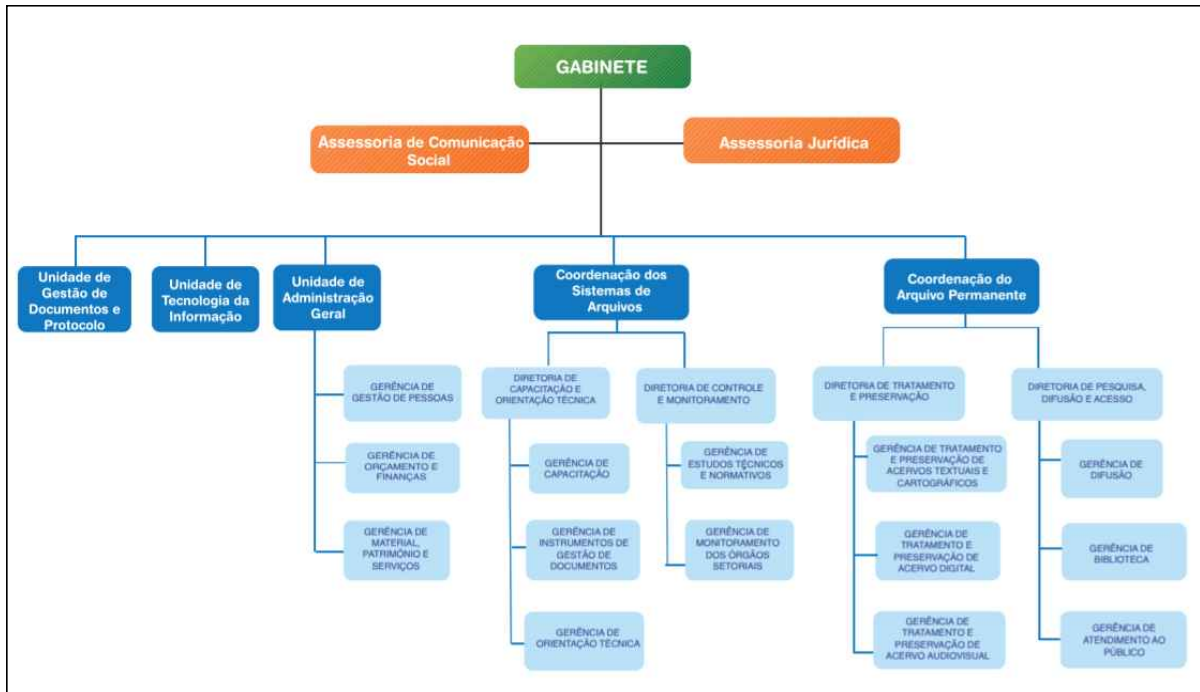
통한 성장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을 당시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해안과 상대적으로 개척이 되지 않은 내륙지역의 격차가 커지면서 내륙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의견이 처음 제기되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로 지연되었다. 이후에 1953년 신수도지구결정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브라질의 수도 기능 이전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수도의 입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브라질 중앙고원의 조사대상 지역 중 5곳의 후보지가 선정되었다. 1955년 5개 후보 지역 중 기후, 용수, 경사도 등 10개의 입지 기준에 따라 브라질의 지리적 중심인 고야스(Goias)주에 속해 있는 현재의 브라질리아 지역으로 결정되었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2003). 실질적인 본격적인 수도 이전은 1956년에 선출된 쿠비체크(Juscellino Kubitschek)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내륙지역을 인구와 개발이 집중되어 있는 해안의 도시들과 통합하기 위해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민들에게 브라질 헌법에 명시된 신수도건설계획을 추진할 것을 공약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부터 새로운 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1956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 신수도건설청(NOVCAP)이 수도 이전을 주도했다.

브라질리아의 수도 입지가 결정된 후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공모되었는데, 26개의 출품된 작품 중에서 브라질 건축가인 루치오 코스타(Lucio Costa)의 설계안이 선정되었다. 브라질리아의 건설은 중앙정부, NOVOCAP, 건설책임자인 오스카 니마아어가 중심이 되어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1960년 4월 21일 건설기념식을 거행하였고, 새로운 수도에서 공식 업무가 수행되었다(산동진, 2004). 1987년에는 ‘현대와 미래가 어울리는 독창적인 도시’로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3년에는 95%의 연방정부 등 관련기관이 브라질리아로 이주하여 수도 이전이 대부분 완성되었다.

3.2 ArPDF(Arquivo Publico do Distrito Federal)

3.2.1 설립과 운영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기록 컬렉션이 생산되었으나, 기록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기록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브라질의 기록보관소 회의에서 실제로 브라질의 각 도시에는 기록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이 존재하지 않아 기록물이 소실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였다(Shirley do Prado Carvalhêdo, 2004). ArPDF는 브라질의 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 역사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설립된 브라질의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으로, 1978년 6월 당시 브라질리아 건설의 사업부장이었던 Walter Mello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1985년 3월 법령 8,530호를 통해 설립되었다. ArPDF의 목표는 브라질리아 건설에 관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관련 기록물의 수집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수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브라질리아 건설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대중과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에 참여한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부터 민간영역의 기록물까지 폭넓게 수집하여 현재 약 800만 건이 넘는 기록물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록관 운영 및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rPDF는 브라질리아가 건설에 착공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인 23여년이 지난 후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초기 단계인 건설 추진단계 기록물부터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구축하였고, 특히 브라질리아 수도 건설과 관련 있는 개인 및 기관 등 민간영역에서 생산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기록의 출처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수집을 추진하였다. 또한 브라질리아 건설에 참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개개인의 구술채록을 수행하여 구술 기록물 컬렉션을 구축하였다. ArPDF는 2000년 4월 28일 법령을 통하여 브라질의 중앙정부기관으로 승격하였다.



〈그림 1〉 ArPDF 조직도

〈그림 1〉은 ArPDF의 조직도로 조직구성과 조직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내각 아래 소통기구, 법률 자문 기구를 두고 있으며, 조직구성은 기록 및 프로토콜 관리국, 정보기술국, 행정국, 기록정책국, 영구기록물 관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 및 프로토콜 관리국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활동을 계획, 실행,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기술국은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등 정보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보안 및 기술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국은 인사관리, 예산 및 재무 등을 담당한다. 기록정책국은 그 아래 교육 및 기술 지침위원회, 감사실을 두고 있다. 교육 및 기술 지침위원회는 기록관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과, 기록물 분류체계 등 기록관리 도구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록도서관리과, 기록관리 절차의 적용에 관한 안내를 담당하는 기술지침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실은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술 및 규정 관리과, 유관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하는 두 개의 과가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국은 영구기록물 보존 활동을 계획,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기록물 처리보존실, 기록물 접근담당실이 있다. 기록물 처리보존실은 종이기록물 처리 및 보존과, 전자기록물 처리 및 보존과, 시청각기록물 처리 및 보존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자료 배포 및 기록물 접근담당실은 기록물의 보급을 목표로 하며, 역사 문화 연구를 계획, 조정하는 홍보과, 이용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서비스과, 전문서지 수집 및 ArPDF에 의해 출판된 출판물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서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3.2.2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 수집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에 관련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의 범위를 넘어서 민간기록물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아카이브로 구축하기 위하여 브라질리아 건설에 참여한 다양한 정부기관의 전문가와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을 조사하였고, 관련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였다. 수집한 기록 컬렉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목록집인 'GUIA De FUNDOS'를 아홉 차례 발간하였다. 8판이 발행된 2016년까지는 17개의 개인,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3년 후인 2019년에는

브라질리아 건설 60주년을 맞아 26개의 출처가 추가된 총 44개의 출처가 포함된 가장 최신판인 9판을 발행하였다. 이 중 21개는 공공영역이며, 23개는 개인과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출처의 기록 컬렉션을 기관 또는 기증받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 및 보존하고 있다. 공공 출처의 경우 브라질리아 건설을 주도하고, 협력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 출처는 3개의 기관과 20개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경우 브라질리아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직군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본인 혹은 가족의 기증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개인 기록 컬렉션에는 구술채록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브라질리아 건설 컬렉션

Fundos públicos (공공 출처)	Fundos privados (민간 출처)
Administração Regional de Taguatinga (Taguatinga 지역 관리국)	Antônio Antunes Praxedes (개인, 저널리스트)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의 공공 기록 보관소)	Armado Sampaio Lacerda (개인, 영화제작자)
Companhia de Planejamento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계획청)	Armando José Bucchmann (개인, 토목기사)
Companhia do Metropolitano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교통청)	Asta-Rose Jordan Alcaide (개인, 예술인)
Companhia Urbanizadora da Nova Capital do Brasil (브라질의 신수도건설청)	Atahualpa Schmitz da Silva Prego (개인, 토목기사)
Fundação Cultural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문화 재단)	Brasília Palace Hotel (법인, 브라질리아 팰리스 호텔)
Fundação Educacional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교육 재단)	Carlos Chagas (개인, 변호사(대통령 대변인))
Gabinete do Governador (주지사 사무실)	Ecilda Ramos (개인, 교육자)
Instituto de Previdência e Assistência dos Servidores do Estado (국가공무원을 위한 사회보장 및 지원 연구소)	Ernesto Silva (개인, 건설계획위원회 위원장)
Procuradoria-Geral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법무처)	Gladson da Rocha (개인, 건축가)
Secretaria de Comunicação Social (사회 소통부)	Instituto Histórico e Geográfico do Distrito Federal (법인, 역사 및 지리연구소)
Secretaria de Cultura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문화부)	Jethro Bello Torres (개인, 측량사)
Secretaria de Desenvolvimento Urbano (도시개발부)	Juca Chaves (개인, 건설회사 직원)
Secretaria de Desenvolvimento Urbano e Meio Ambiente (도시 개발 및 환경부)	Lea Sayão Carvalho Araújo (개인, 브라질리아 지리 연구소 회원 및 연방 의원 후보)
Secretaria de Educação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교육부)	Lucídio Guimarães Albuquerque(개인,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
Secretaria de Gestão do Território e Habitação (토지 관리 및 주택 사무국)	Luiz José Borges Neto (개인, 사진기자)
Secretaria de Saúde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보건부)	Manoel Barreto de Brito (개인, 기업인)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do Distrito Federal (연방 지구 공안부)	Maria Beatriz Leonardo do Carmo (개인, 전기회사 엔지니어)
Secretaria de Viação e Obras (도로사업부)	Paulo de Tarso Santos (개인, 브라질리아 시장)
Secretaria do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Turismo (경제 개발 및 관광 사무국)	Sônia Naves Davi Amorim (개인, 농업기획위원회)
Sociedade de Abastecimento de Brasília (브라질리아 조달 협회)	Stênio de Araujo Bastos (개인, 농업경제학자)
	Yvonne Jean (개인, 저널리스트)
	Zelinda Dalba Mattana (법인, 토지 회사)

또한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에 관하여 정부기관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의 지평을 넓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브라질리아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물과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술기록 수집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ArPDF의 직원이 관련된 주제의 질의사항을 준비하여 직접 수행하였으며, 60분 길이의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였고, 평균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원본 컬렉션은 총 285개의 테이프와 6개의 CD가 보존서고에 보관되어 있고, 보안 조치로 원본을 복제하여 복제한 사본을 다른 장소에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구술기록의 텍스트를 플로피 디스크, CD, 종이로 제공하고 있다. 수집한 구술기록에 관한 목록집인 ‘Oral Testimonials Catalog I, II’를 1994년에 초판 발행하였고, 인터뷰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2008년에 2판을 발행하였다.

<표 3> 브라질리아 건설 관련 구술기록 수집목록

Catalog 1	Catalog 2
Memória da Construção (건설 기억)	PLANALTINA 지역
Memória Filmográfica (필모그래피 메모리)	ÚCLEO BANDEIRANTE 지역
Memória Fotográfica (사진 메모리)	CEILÂNDIA 지역
Yvonne Jean (이본 장)	TAGUATINGA 지역
Brasília Palace Hotel (브라질리아 팰리스 호텔)	FEIRAS LIVRES
Política e Sociedade (정치와 사회)	-
Comunicação e Arte (예술)	-

<표 3>은 브라질리아 건설 관련 구술기록 수집목록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talog1은 브라질리아 건설을 기억하는 다양한 사회적·전문적 역할을 수행한 직군의 개인을 인터뷰한 ‘건설 기억’, 브라질리아 건설과 관련된 영상 및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언론인 등을 인터뷰한 ‘필모그래피 메모리’, 브라질리아 지역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사진을 인터뷰한 ‘사진 메모리’, 저널리스트와 관련된 ‘Yvonne Jean’, 브라질리아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브라질리아 팰리스 호텔에 관한 기억을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자를 인터뷰한 ‘브라질리아 팰리스 호텔’, 정치 및 사회 활동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련된 들을 인터뷰한 ‘정치 및 사회’, 지역 예술가의 기억을 인터뷰한 ‘예술’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주제 영역인 ‘건설 기억’에는 브라질리아 건설에 참여한 건축가, 기술자, 근로자, 정치인, 고위 관리, 사업가, 언론인, 예술가 등 다양한 사회 부문을 대표하는 시민들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각 부문을 구성할 때 각 면담 대상자의 현재 직업이나 상황이 아닌 브라질리아 건설기간 동안의 역할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Catalog2는 브라질리아의 최초의 도시 중심지 형성의 역사를 복구하기 위하여 진행된 구술기록 수집 프로젝트로 각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관련된 개인의 인터뷰를 수집하였다.

3.2.3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 기술과 분류

ArPDF는 수집한 브라질리아 건설의 기록물을 기술하기 위하여 브라질 국립 기록관에서 사용하는 국제 보존기록 기술규칙인 ISAD(G)를 준용한 브라질의 보존기록 기술에 관한 국가표준인 NOBRADE를 채택하였다. 이 표준을 적용하여 브라질리아 건설과 관련된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기록물 컬렉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기술하여 수집한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ISAD(G)와 NOBRADE의 비교

ISAD(G)	NOBRADE
1. 식별 영역	1. Área de Identificação (식별 영역)
2. 배경 영역	2. Área de Contextualização (배경 영역)
3. 내용과 구조 영역	3. Área de Conteúdo e Estrutura (내용과 구조 영역)
4. 접근과 이용조건 영역	4. Área de Condições de Acesso e Uso (접근과 구조 영역)
5. 관련자료 영역	5. Área de Fontes Relacionadas (관련자료 영역)
6. 주기사항	6. Área de Notas. (주기사항) 6.1 Notas sobre conservação (보존에 관한 참고사항)
7. 기술통제 영역	7. Área de controle da descrição (기술통제 영역)
-	8. Área de pontos de acesso e indexação de assuntos (접근점 및 주제 색인)

NOBRADE는 기록보존에 대한 브라질 국가표준으로서, 국제표준인 ISAD(G)와 ISAAR(CPF)를 브라질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한 보존기록물 기술 표준이다. 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용 및 준현용 기록물에 적용하기도 한다.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제표준인 ISAD(G)와 각 영역과 기술요소가 거의 동일하나, 브라질 표준 NOBRADE에서는 세부 기술요소인 6.1 Notas sobre conservação(보존에 관한 참고사항) 와 8. Área de pontos de acesso e indexação de assuntos(접근점 및 주제 색인), 8.1 Pontos de acesso e indexação de assuntos(접근점 및 주제 색인)이 추가되어 있다. 6.1 보존에 관한 참고사항 요소에서는 기록물의 보존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존 및 복원 조치사항, 보존에 관한 처리사항, 현재의 물리적 상태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기술요소의 값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으로, 주기적으로 관리 이력을 연대순으로 작성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영역의 목적은 특정 요소의 콘텐츠를 검색하는 방법을 기술하기 위함이며, 계층적 기술을 위하여 관리자가 보존기록에 대한 주제 색인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영역이다. 기록물의 생산자를 포함한 기록의 출처의 색인 생성의 경우에 ISAAR(CPF) 표준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Conarq, 2006). 이와 같은 브라질의 보존기록물 기술 표준을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 컬렉션에 적용하여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별 영역에서는 나라의 주요 구성단위의 명칭에 고유 부호를 부여하는 국제표준인 ISO3166을 적용하여 기록물을 수집한 출처 대상에 'BR'로 시작하는 고유 코드를 부여하며, 관련 기록 군에 하위 코드를 부여한다. 또한 제목(기관명), 기록물 생산기간, 수집한 기록물 컬렉션의 수량 등을 기술하고 있다.
2. 배경 영역에서는 생산자 정보, 기록물 수집 출처 대상의 행정사와 연혁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 ArPDF로 이관된 날짜 등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행정사는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에서 정부의 행정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였고, 이 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브라질 정부기관의 행정사와 기록물을 기증한 개인의 경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2>는 브라질리아 연방 지구 공안부의 선거 레코드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진으로 기관의 존립기간, 변천 역사, 위치, 법적 지위, 기능 및 활동 등의 배경 정보를 기술하여 제공하고 있다.
3. 내용과 구조 영역에서는 기록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정보,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정보, 아카이브 컬렉션 정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4. 접근과 사용조건 영역에서는 기록물의 접근 가능 여부, 기록물의 언어, 검색 도구 등을 기술하고 있다.
5. 관련 자료 영역에서는 원본과 사본의 위치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6. 주기사항에서는 그 밖의 기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Area de identificação	
tipo de entidade	Entidade coletiva
Forma autorizada do nome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da Prefeitura do Distrito Federal - SEP (1967-1969);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do Governo do Distrito Federal - SEP (1970-1989);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do Governo do Distrito Federal - SSP (1989-2003); ... »
identificadores para entidades coletivas	00.394.718/0001-00 (Cadastro Nacional de Pessoas Jurídicas - CNPJ)
área de descrição	
datas de existência	1967 - até os dias atuais
história	"A Secretaria de Segurança Pública do Distrito Federal tem sua origem na estrutura da Companhia Urbanizadora da Nova Capital (NOVACAP). A Divisão de Segurança Pública (DSP) foi criada no período da construção de Brasília (1956-1960) com o objetivo de ... »
Locais	Brasília
status legal	Administração direta
funções, ocupações e atividades	"De acordo com o Decreto nº 28.691, de 17 de janeiro de 2008, que aprova o Regimento Interno da Secretaria de Estado de Segurança Pública do Distrito Federal, compete ao órgão: I – propor e implementar a política de segurança pública fixada pelo ... »
Mandatos/Fontes de autoridade	Lei Federal nº 2.364, de 9/12/1958; Lei Federal nº 4.483, de 16/11/1964; Decreto-Lei nº 315, de 13/03/1967; Decreto Distrital nº 645, de 21/08/1967; Decreto Distrital nº 825, de 30/09/1968; Emenda Constitucional nº 01, de 17/10/1969; Lei Distrital nº 49, ... »

〈그림 2〉 브라질리아 연방 지구公安부의 전거레코드 구축 화면

2000년 4월 28일 제정된 공공기록물 보존에 관한 법률 No.2,545에 따라 “분류기준표 및 색인은 각 기관 및 단체에서 개발해야 한다. 각 기관은 영구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국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생산 및 접수 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여부를 정의할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하였다.

2003년에 제정된 브라질의 공공기록물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No.24.205에 따르면 기록물에 관한 분류기준표를 “기관이 기능 및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모든 문서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작업도구”이며 “기록물의 현용기록물 및 준현용기록물 상태의 기간을 나타내고, 영구보존 또는 폐기를 결정하는 평가 도구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브라질의 국립 보존 기록관의 경우 분류를 위한 보조도구로 색인을 개발하여 알파벳순으로 정렬하고 숫자 코드로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ArPDF는 브라질리아 건설에 관한 기록물을 넘어서 도시건설기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ArPDF는 2006년에 작성된 지방청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도시 건설을 시행하는 지역행정부와 협력하여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개발하였다. 이 분류법은 브라질의 국가 기록보관소 협의회(CONARQ)의 결의안에 의해 권장된 십진분류법을 사용하였으며,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100번대-400번대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십진분류법을 이용한 분류기준표는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5> ArPDF의 도시건설기록물 분류 기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00 승인 및 인허가	110 건축물 인허가 120 영리 또는 비영리 운영 허가 130 공공장소 사용의 규제 140 최종 라이선스	101 인허가 계획 및 연구 110 111 건축물 인허가에 관한 공공서비스 ...
200 도시 구조	210 유지 및 보존 220 작업 및 서비스 관리	201 도시기반시설 관련 계획 및 연구 210 211 고객서비스 ...
300 행정구역 관리	310 서비스 및 정보 제공 320 영토 사용 및 점유 330 매핑 제어 340 합동 이사회 관리	301 행정구역 관리 관련 계획 및 연구 302 규정 표준화 ...
400 경제 및 사회발전	410 서비스 및 홍보 420 공공 장소 및 장비 관리 430 사회 서비스의 후속 조치	401 경제 및 사회발전 관련 계획 및 연구 ...

이 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의 생산 목적, 사용 기간, 최종 관리 상태를 정의하고 있다. 이 분류기준표의 기록물 보존 기간 및 최종 관리 상태 등은 브라질의 건축법 2105호 시행령 36,225호를 기반으로 업무의 연속성 등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TABELA DE TEMPORALIDADE E DESTINAÇÃO DOS DOCUMENTOS DA ATIVIDADE FIM DAS ADMINISTRAÇÕES REGIONAIS DO DF – 2017					
CÓDIGO	ASSUNTO	PRAZOS DE GUARDA		DESTINAÇÃO FINAL	OBSERVAÇÕES
		FASE CORRENTE (em anos)	FASE INTERMEDIÁRIA (em anos)		
100	APROVAÇÃO E LICENCIAMENTO				
101	PLANEJAMENTO	5	10	GP	
110	APROVAÇÃO E LICENCIAMENTO DE OBRAS				
111	ATENDIMENTO AO PÚBLICO	1	4	E	
112	CONSULTA PRÉVIA PARA EDIFICAÇÃO	1	4	E	
113	APROVAÇÃO DE PROJETOS	Enquanto vigorar	80	GP	
114	LICENCIAMENTO PARA EXECUÇÃO DE OBRAS	1	80	GP	
114.1	LICENCIAMENTO PARA CANTEIRO DE OBRAS/TAPUMES	1	10	E	

<그림 3> ArPDF의 도시건설기록물의 최종 관리단계를 정의한 분류기준표

<그림 3>은 도시건설기록물의 최종 관리 상태를 정의한 분류기준표의 일부이다. 업무기능마다 Fase Corrente(현용 상태), Fase Intermediária(준현용 상태)를 구분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으며 Destinação Final(최종 관리 상태)는 GP(Guarda permanente, 영구 보존) 혹은 E(eliminação, 폐기)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기능 113코드 APROVAÇÃO DE PROJETO(프로젝트 승인)의 현용 상태의 보존기간이 Enquanto vigorar(시행하는 동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특정 업무의 경우 필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유연하게 책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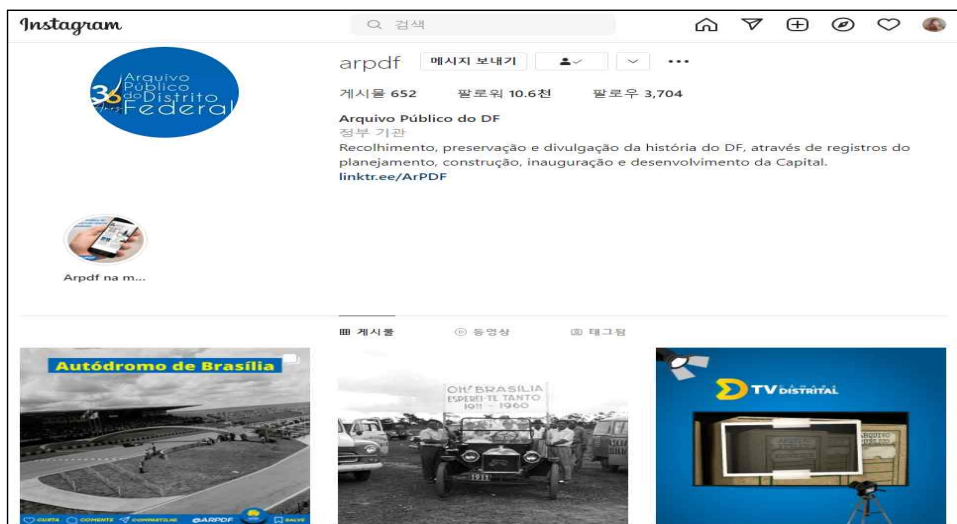
ArPDF는 보존 기록 컬렉션에 대한 웹 기반의 접근을 가능케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통합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지속해서 연구했다. 그리하여 보존 기록에 관한 기술을 위한 도구로 ISAD(G)에 관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AtoM을 택하였다. AtoM은 ICA와 캐나다의 Artefactual 사가 협력 및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 기록의 기술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로 아이템 단위 중심의 수집형 및 조직과 기능 구조 중심의 이관형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소프트웨어이자, 민간과 공공영역 등 다양한 주제의 기록에 대해 분류와 기술이 가능한 기록시스템이다.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현용기록 외의 주제 기록에 대한 적극적 수집과 활용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조직에서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기록물에 적용할 수 있다(이보람 외, 2013). 이러한 특성을 가진 AtoM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메뉴를 편집하는 등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영역 등 다양한 수집처의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ArPDF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AtoM을 활용하고 있다.

3.2.4 브라질리아 건설기록물 기록정보서비스

ArPDF는 수집한 기록물에 대하여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웹사이트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2012년 정보접근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저장한 정보의 접근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 접근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면,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포털과 같이 시민 정보 서비스(e-SI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공식 SNS 계정을 개설하여 브라질리아의 계획, 건설, 개발에 관한 기록물 컬렉션의 소개와 함께 행사 등의 홍보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 4〉 ArPDF의 SNS 계정을 활용한 홍보

뿐만 아니라 ArPDF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한적 조치로 인하여 시민들을 위한 가상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ArPDF가 소장하고 있는 약 800만 개의 기록물 중에서 새롭게 수집된 브라질리아의 계획,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5개의 전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현재 ArPDF의 웹사이트에서 전시되고 있는 가상 전시 리스트와 콘텐츠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브라질리아 가상전시 리스트 및 콘텐츠 내용

전시회명	콘텐츠 내용
COMISSÕES CRULS	브라질 중부고원 탐사연구위원회의 역사
HISTÓRIA DO LAGO PARANOÁ	파라노아 호수의 역사
PRAÇA DO CRUZEIRO	크루제이로 광장의 건설 역사
NÚCLEOS DE APOIO	지원센터
ESTACA ZERO	브라질리아를 위한 루시오 코스타 프로젝트의 조사점

가상전시는 각 테마별로 주제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 위주로 기획되었다. 5개의 주제별로 전시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텍스트와 음성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ArPDF 웹사이트에서 전시회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전시를 즉시 관람할 수 있다. <그림 5>는 브라질 중부고원 탐사연구위원회의 역사와 관련된 가상 전시화면의 일부로 사진 기록물을 활용하여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이 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으며, 하단의 재생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내용의 음성파일이 재생된다.



〈그림 5〉 브라질 중부고원 탐사연구위원회의 역사 가상 전시화면

4. 시사점 및 결론

브라질은 우리나라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모범적 선진사례로 선정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의 건설 과정은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인 세종시의 건설 과정과 목적과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인 브라질리아 건설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문기록관 운영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기록관을 설립하였고 브라질리아 건설과 관련된 기록물을 공공과 민간영역을 망라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특히 대중에게 잘 소개되지 않은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서 관리하여 브라질 국가표준을 적용한 기술 및 업무기능을 참고하여 자체 개발한 분류, 수집한 기록의 출처 및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목록집 발간, SNS를 통한 홍보 및 가상 전시 등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행정수도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생산된 기록물이 분산 보존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 불리는 신행정수도 지역 내에 전문기록관이 존재하지 않아 기록물관리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 놓여있다.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건설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자발적 기증에 의존한 수집 방법, 수집 단계에 그쳐 단순 보존 중인 상태가 유지되는 등 적극적 서비스의 부재라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브라질리아의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을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기록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도시로, 해당 도시의 건설과 관련한 기록물은 정치적, 행정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도시 건설 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관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둘째, 설립되는 신행정수도 건설기록관은 현재 공공과 민간영역에 산재해 있는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을 망라하여 적극 수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신행정수도건설의 참여주체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관련 기관이 연계하고 협력하여 신행정수도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관, 개인, 단체를 전수조사하고, 단순 일회성 수집이 아닌 지속적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장처를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등의 접근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 등 민간영역의 적극적 수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도시건설기록물, 즉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이 가진 고유성과 특성이 반영된 정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 건설을 수행하며 수집한 기록물은 생산처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 형태가 다양하다. 브라질은 이러한 수집 기록물에 보존기록의 기술에 관한 국가 표준 'NOBRADE'를 적용하여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인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을 적용하여 기록물의 정보를 기술하는 등의 표준화된 관리 도구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브라질은 도시 건설의 업무기능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고 건축법 등의 개별법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록물 분류체계로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도입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으나, 1, 3, 5, 10, 30, 준영구, 영구의 7단계의 정립된 보존기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변동이 빈번하고, 중장기 및 단기 프로젝트가 혼재하는 도시건설기록물의 분류에 적용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직접 관리기관으로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제어가 가능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을 고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을 고려하고, 업무연속성 등을 참고한 유연한 보존기간 책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물 수집 주체에 대한 전거레코드를 구축해야 한다. 브라질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물 생산기관인 정부 조직의 변천 과정과 기록물을 기증한 개인의 전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거레코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생산기관변천정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16년 10월 기준의 직제 변경사항이 반영된 이후 활발히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 과정의 맥락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부기관을 넘어서 기록물을 수집한 민간 출처인 개인, 단체 등의 전거레코드를 구축하여 신행정수도건설에 참여한 주체의 배경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 목적과 수준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검색 도구 개발, 열람, SNS를 활용한 홍보, 수집된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전시,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등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브라질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수행하면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브라질의 신행정수도 브라질리아는 우리나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시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던 도시지만, 우리나라의 기록학 분야에서 연구된 사례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브라질리아 기록관인 ArPDF 사례를 살펴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 기록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브라질리아

이외에도 호주의 캔버라,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등 다수 국가의 신행정수도건설기록물 관리 사례를 추가로 연구하여 비교 분석한다면, 우리나라 신행정수도건설 기록물 관리를 위한 보다 나은 방안이 모색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은 2030년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건설사업 이므로 후속 사례연구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안제 (2016). 세종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서울: 보성각.
- 김연진 (2019).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기록연구: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훈 (2020). 사회적 갈등사건 기록화 연구:신행정수도 이전 추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박오뜸 (2019). 건설기록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세종특별자치시 (2017).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사업 연구용역 보고서.
- 신동진 (2004). 해외의 수도건설 3 : 브라질리아(Brasilia). 도시문제, 39(425), 74-94.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2003).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 엄수용 (2020). 도시기록 아카이브 설립방안 연구:성남시의 도시개발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유광흠, 오성훈, 조상규, 성은영 (2008). 건축·도시공간 아카이브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안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유병후 (2014). 중국 도시건설기록관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이동배, 김용하 (1991). 신도시 개발의 전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7(3), 203-215.
-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훈, 최윤진, 임진희 (2014). 공개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 가능성 연구: ICA AtoM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193-228. <https://doi.org/10.20923/kjas.2014.39.193>
- 이상민 (2006).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 혹은 재평가 -이론적 쟁점과 평가의 실제-. 기록학연구, 14, 3-51. <https://doi.org/10.20923/kjas.2006.14.003>
- 한서영 (2019).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형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6). 2012~2015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11-1670000-000151-11).
-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2008a). Depoimento Orais I: catálogo.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vailable: https://www.arquivopublico.df.gov.br/wp-content/uploads/2017/09/Catalogo_Depoimentos_Orais_I.pdf
-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2008b). Depoimento Orais II: catálogo.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vailable: <https://www.arquivopublico.df.gov.br/catalogo-depoimentos-orais-ii/>
-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2017). Classificação, Temporalidade e Destinação de Documentos de Arquivo Relativos Às Atividades-FIM Das Administrações Regionais Do Distrito Federal.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vailable: <https://www.arquivopublico.df.gov.br/wp-content/uploads/2019/08/PCTT-FIM-RAS.pdf>
-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2018a). Orientações Para Acesso Ao Acervo Arquivístico.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vailable: https://www.arquivopublico.df.gov.br/wp-content/uploads/2018/12/ArPDF___ORIENTACOES_PARA_

ACESSO_AO_ACERVO.pdf

-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2018b). Walter mello. Eetre A Oralidade E A Escrita. Apontamentos Biográficos.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valiable:
<https://www.arquivopublico.df.gov.br/wp-content/uploads/2018/11/WALTER-MELLO-PDF.pdf>
-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2019). Guia De Fundos.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Avaliable:
https://www.arquivopublico.df.gov.br/wp-content/uploads/2020/02/GUIA_DE_FUNDOS_Completo_HomePage_ArPDF-novo.pdf
- Conselho Nacional de Arquivos (2006). NOBRADE:Norma Brasileira de Descrição Arquivístkca. Conselho Nacional de Arquivos. Avaliable:
<https://www.gov.br/conarq/pt-br/centrais-de-conteudo/publicacoes/nobrade.pdf>
- Oliveira, Angélica Gasparotto de (2013). Preservação de Acervos Fílmicos no Distrito Federal. Tese de mestrado, Universidade de Brasília, Faculdade de Ciência da Informação.
- Shepherd, E. & Yeo, G. (2003). Managing records: A handbook of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Facet Publishing.
- Shirley do Prado Carvalhêdo (2003). O Arquivo Público do Distrito Federal: Contextos, Concepções e Práticas Informacionais na Trajetória de uma Instituição Arquivística. Tese de mestrado, Universidade de Brasília, Faculdade de Ciência da Informação.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Eom, Su-Yong (2020). City Record Archive Establishment Method Research : Based on Seongnam city Development Proces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Hahn, Suh-young (2019). The Planning Process of Urban Form for The New Administrative City of Korea. Doctoral thesis, Seou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 Kim, Anje (2016). This Is How Sejong City Was Made. Seoul: Boseonggak.
- Kim, Yeon-jin (2019). Study on Urban Dvelopment Project Record of basic Local Government : Focus on The Case of Cheonan.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Kim, hoon (2020).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of Social Conflict Events : With a Focus on the Conflict Cases in the Transfer of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 Lee, Boram, Hwang, Jin-hyun, Park, Min-yung, Kim Hyung-hee, Choi, Dong-woon, Choi, Yun-jin & Yim Jin-hee (2014). A Study on Usability of Open Source Software for Developing Records System : A Case of ICA AtO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193-228.
<https://doi.org/10.20923/kjas.2014.39.193>
- Lee, Dong-bae & Kim, Yongha (1991). A Study on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New Town Developmen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7(3), 203-215.
- Lee, Sangmin (2006). Appraisal or Re-Appraisal of the Japanese Colonial Archives and the Colonial City Planing Archives in Korea: Theoretical Issues and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4, 3-51. <https://doi.org/10.20923/kjas.2006.14.003>
-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2016). 2012~2015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White Paper (11-1670000-000151-11).
-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romotion Planning Group, & New Administrative Capital

- Construction Promotion Support Group (2003)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is is how we are doing it. Seoul: New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romotion Project Group.
- Park, Eu-Tteum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Record Management System.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Sejong City (2017). Sejong City Birth Process Recording Project Research Service Report.
- Shin, Dongjin (2004). Overseas Capital Construction 3: Brasilia. Urban affairs, 39(425), 74-94.
- Yu, Gwang-heum, Oh, Sunghoon, Cho, Sangkyu & Seong, EunYoung (2008). (The) Policy Strategy for Building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Archives in Korea. Anyang: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e.
- Yu, Byung-hoo (2014). The Research of Urban Construction Archives in China.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